

2022년 글로벌 제약바이오시장 전망

본 내용은 Evaluate Pharma®에서 발간한 “Evaluate Vantage 2022 Preview”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요약했으며 전체 내용 및 자세한 정보는 위 보고서를 참고 바람

글로벌 주요 전망

- 2022년 처방의약품 매출 1위 기업은 코로나19백신인 Comirnaty로 인해 Pfizer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Abbvie 와 Johnson & Johnson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
- 중소형 바이오텍의 작년 주가 하락은 IPO 시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대형 제약사의 충분한 자금 확보와 함께 대형 제약사-중소형 바이오텍 간의 M&A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팬데믹 상황에도 신규 항암제 연구 및 협업 등이 주목되며, 또한 알츠하이머 항체치료제 시장의 약진 예상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친 영향은 202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주요 글로벌 제약사에 많은 자금을 유입시켰고, 이는 지난 몇 달간의 주가 하락과 함께 2022년 M&A의 증가의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IPO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헬스케어 부문이 아닌 다른 영역(팬데믹 회복 수혜주 등)으로 투자 방향을 선화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에 상장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한 성과에 기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수혜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한편, 항암제 시장을 주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항체치료제 시장에서 일부 글로벌 제약사가 중국의 제약사와 협업하여 저가의 항PD-(L)1 항체치료제를 출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항TIGIT 항체, 이중항체, 항체-약물 접합체 등 신규 항암제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 Biogen의 Aduhelm 이후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과 RSV(Respiratory syncytial virus)에 대한 최초의 치료제 개발(Glaxosmithkline, GSK3888550A) 현황도 눈여겨 볼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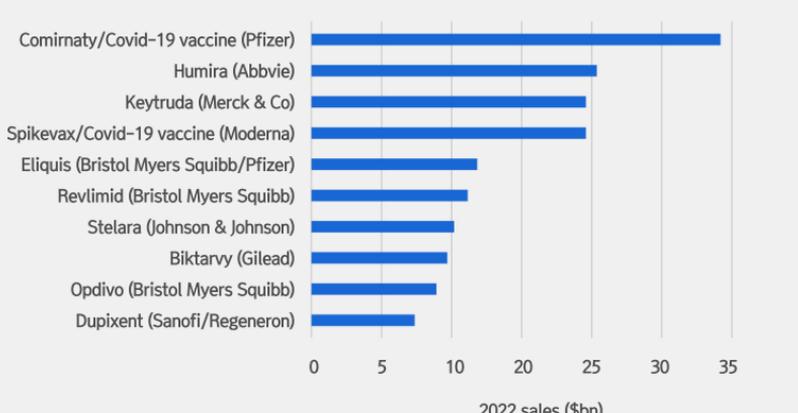
\*신규 항암제 개발, RSV 치료제 등 개발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요약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음

■ 코로나19 백신 매출 1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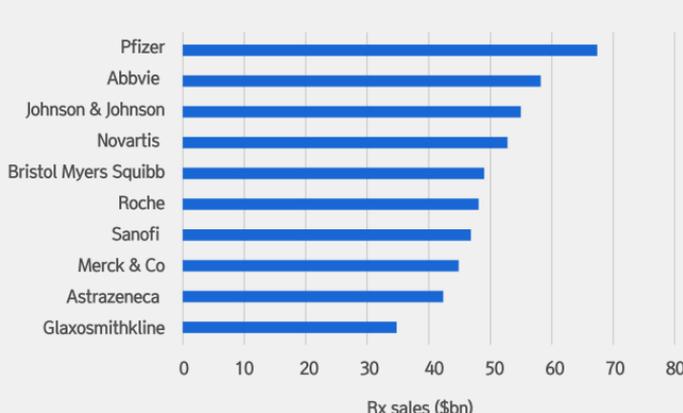
코로나19 백신(Pfizer의 Comirnaty와 Moderna의 Spikevax) 매출은 내년에도 최소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Moderna의 생산 역량 확보로 인해 Pfizer보다 Moderna 백신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을 제외하고 항류마티즘 부문의 Humira(Abbvie)가 2022년까지는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Humira의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2023년부터는 면역항암제인 Keytruda(Merck & Co)가 매출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백신의 매출은 내년도 Pfizer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Pfizer가 매출 1위를 차지하는데 주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Astrazeneca는 Alexion(Tagrisso, Lynparza 등 표적치료제 개발사) 인수의 영향으로 매출 10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Eli Lilly는 항암제 Alimta의 특허 만료 등으로 인해 매출 10위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li Lilly의 Donanemab(알츠하이머 치료제), Tirzepatide(제2형 당뇨병 치료제), Tyvyt(Humira 바이오시밀러) 등이 2022년에 허가 예정으로, Eli Lilly의 매출은 단기간 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Top selling drugs in 2022



Biggest companies in 2022, by Rx sales



Source : Evaluate Pharma

〈2022년 제품 및 기업 매출 Top 10〉

■ 대형 제약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중소형 바이오텍의 주가 하락

지난 2년간의 주가 변동 추이를 봤을 때, 대형 제약사(XLV)는 S&P 500(RSP) 성장과 함께 안정적으로 시장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형 바이오텍(XBI)의 주가 변동 폭이 컸는데, 이는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2월까지 급격하게 유입된 투자 자본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큰 폭의 주가 변동은 IPO 시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고평가된 비상장 기업들이 M&A로 눈길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Source : Evaluate Pharma

〈2019년~2021년 간 주가 변동추이〉

■ 항암제 과제 주도로 Licensing 거래 활발

향후 대형 제약사와 중소형 바이오텍 간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충분한 자금을 확보한 대형 제약사가 현시점에서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Licensing 거래이다. 상장 혹은 비상장된 기업의 고평가된 시장가치는 지난 몇 년간 M&A 거래를 다소 위축시켰으나, Licensing 거래에는 영향이 적었다.



Source : Evaluate Pharma

〈2017년~2021년 간 Licensing deals 현황〉

특히, 공개된 Upfront의 평균 금액을 비교하였을 때, 2017년 평균 5,900만 달러에서 2019년 평균 7,600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값은 2021년 3분기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항암제 분야에서의 높은 거래 금액에서 기인하였다.

- Merck & Co(Licensors)와 Astrazeneca(Licensee) 간의 Lynparva & selumetinib 거래(\$1.6bn, 2017)
- Astrazeneca(Licensors)와 Daiichi Sankyo(Licensee) 간의 Enhertu 거래(\$1.4bn, 2019)
- Astrazeneca(Licensors)와 Daiichi Sankyo(Licensee) 간의 Datopotamab 거래(\$1.0bn, 2020) 등